

시민안전실

I . 일반현황

II .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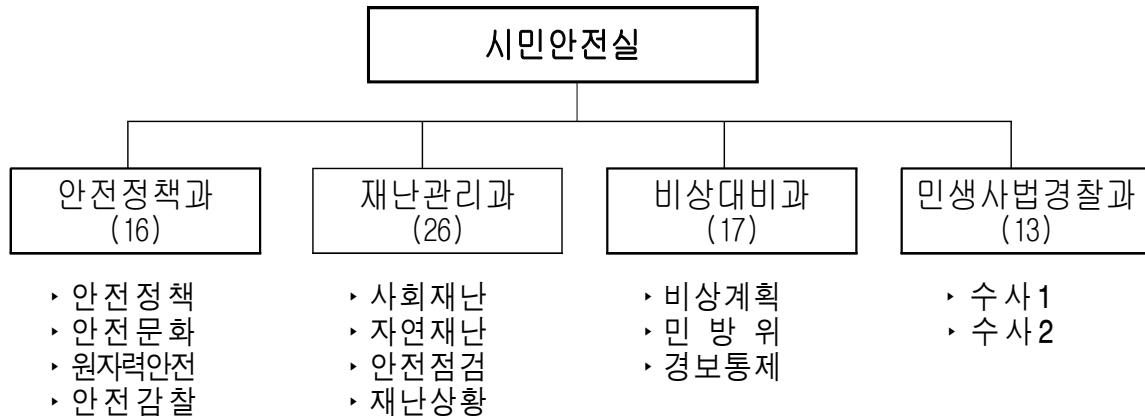
III.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

I . 일 반 현 황

① 시민안전실의 주요기능

- 지역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 안전정책 수립 시행, 안전문화운동 전개
 - 시기별 안전대책, 안전체험 교육, 방사능 방재대책 등 안전도시 기반 조성
-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, 민·관협력 등 총괄적인 재난대응
 - 재난안전한국 훈련, 매뉴얼 정비, 풍수해피해 저감 등 자연재해 예방 대응
-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
 - 재난예·경보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, 시특법대상시설 점검 관리
- 국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구축
 - 비상대비 훈련, 동원자원 관리, 충무계획수립, 민·관·군 통합방위 협력 제고
- 민방위 대비태세 및 경보전달 대응체계 확립, 특별사법 경찰 운영
 - 민방위 교육·훈련, 시설·장비 점검, 경보발령, 유해사범 단속 민생안전 확보

② 조직 및 인력 : 4과 12팀(정원 72명)



③ 2019년 예산현황 : 32,767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안전정책과	재난관리과	비상대비과	민생사법경찰과
계	32,767	29,188	2,295	1,061	223
일반회계	16,465	12,886	2,295	1,061	223
특별회계(소방안전)	3	3	-	-	-
재난관리기금	16,299	16,299	-	-	-

* 일반회계 :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,302백만원 포함 / 순수 일반회계 4,163백만원

II.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

2018년에는

지역안전관리계획 시행, 원자력안전 협약 이행, 폭염 등 신속한 재난대응과 상황전파, 민·관협력의 국가안전대진단, 민생사범 단속 등 안전환경 조성에 매진

2018 주 요 성 과

- 지역안전 총괄관리 등 현장중심의 시민공감·참여형 정책 추진
 - ▶ 지역안전관리계획(97개), 행락철, 여름철, 겨울철 등 시기별 대책
 - ▶ 시민안전교실(497개소), 안전신문고(16,160건), 안심마을 조성(3개소)
 - ▶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지침 마련, 방사선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(주1회)
- 태풍, 폭염 등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
 - ▶ 국가안전대진단(8,419개소), 예·경보시설 확충(80개소), 안전한국훈련(2주간)
 - ▶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(154일), 무더위쉼터(915개소), 내진보강추진(82개소)
-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유해사범 단속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
 - ▶ 통합방위협의회(4회), 대피시설 정비(452개소), 경보시설 운영(56개소)
 - ▶ 유해사범 단속(883개소, 검찰송치 99건) 치안협의회(3회)
- ※ 민방위업무평가 우수기관(총리 표창), 겨울철 자연재해대책추진 우수기관(1억원)
‘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(예·경보시설 설치사업 등 225억원)

2019년에는

안전사고 감축을 통한 안전선진국 도약의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‘안전 일류도시 대전’ 가꾸기 역점 추진

정 책 환 경

- ▶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대형재난 발생빈도 증가 추세
- ▶ 지진과 이에 따른 시설물 붕괴, 원자력안전 등 복합재난 발생 우려
- ▶ 인구고령화로 안전취약계층 증가와 도시기반시설 노후 심화
- ▶ 도로교통, 축제장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

2019 정 책 방 향

- ▶ 지진, 태풍 등 대형복합재난 대비 종합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
- ▶ 민·관 협력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협업 대응
- ▶ 안전체험과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
- ▶ 미세먼지 등 생활안전 증진과 시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사범 단속 강화

III.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1. 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강화**
- 2.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상시적 감찰활동**
- 3.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**
- 4.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민·관협력 확대**
- 5.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**
- 6. 시민생활건강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**

1. 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강화

-
- ◇ 안전관리 주체와 지역공동체가 참여·협력하는 통합적 안전협업 강화
 - ◇ 체험위주의 교육과 신고 강화로 사고 시 대처능력 배양 및 안전환경 조성
-

① 통합적 안전관리 협업 강화

- (지역안전관리계획 시행) 재난유형별 예방·대응대책 총괄 관리 강화
 - 자연·사회재난(83개 유형), 교육청·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간 협업
- (안전도시종합계획 이행)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54개 과제
 - 화재, 지반침하, 폭염, 미세먼지 등 과제별 관리지표 설정 체계적 실천관리
 - 여름철, 겨울철, 봄·가을 행락철, 개학기 등 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강화
- (공공부문 산재 제로화) 공공 수행사업 안전관리 감독 철저
 - 건설·건축공사장 비계설치, 생활폐기물 수집운반, 노후 하수관로공사 등

②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

- (안전교육 강화) 안전 취약계층 대상 중점 교육 강화
 - 영·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
 - 장애인·노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
- (참여·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) 참여하고 체득하는 교육 강화
 - 시민과 市 직원대상 안전체험 교육 지속 추진 / 119시민체험센터
 -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개최 /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, 안전골든벨 등

③ 시민과 소통하는 안전문화운동 봄 조성

- (시민주도형 안전환경 조성) 지역민 주도 안전한 지역만들기 추진
 -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소 신고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
 - 마을단위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‘안심마을 조성사업’ 추진
- (안전생활 실천 봄 확산)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하는 캠페인 및 홍보 강화
 - 안전점검의 날(매월 4일) 운영 및 주간안전예보(TBN대전교통방송) 지속 홍보
 - 대규모 행사연계 안전문화 홍보부스 운영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배포

2.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상시적 감찰활동

-
- ◇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망 강화
 - ◇ 선제적 재난·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 실태 감찰
-

①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 추진

- (제도 개선)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와 자치단체 감독권 제도화
 - 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(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운영)
- (시설 안전) 원자력시설 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
 - 안전협약 이행 점검,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, 신규사업 안전성 확인
 - 시민검증결과 후속대책 추진, 연구원 추진상황 점검 시민안전 확보
- (시민 안전) 시민 불안해소, 원자력시설 시민감시망 강화
 -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(분기1회 이상), 방사능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
 - 마을활동가 방사능측정기 지급(15백만원)

② 방사능 방재대책 내실화

- (방사능 방재시스템 강화) 방사능 비상 등 위급상황 대비 시민대피시스템 구축
 - 기상·지리·교통정보 활용하여 즉시 대응 가능한 시민대피 모델 개발(30백만원)
- (방재역량 강화) 방재요원과 지역주민의 방재훈련·교육 내실화
 - 방사능방재요원 교육(신규, 보수 교육) 정규화, 시설 주변지역 주민·학생 방재 교육
- (방사선량 감시 강화) 방사선량 감시체계 실시간 공개 확대, 이동 측정시스템 본격 운영

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강화

- (안전감찰 활동)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감찰로 각종 사고예방
 - 안전감찰계획 수립, 재난예방·대비조치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 감찰
- (취약분야 감찰) 재난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(수시) 안전감찰 추진
 - 취약시기(동절기, 명절, 대설 등) 또는 재난관련 관심사항 발생 시 분야별 감찰
 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 중점 점검
 -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사후관리 철저

3.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

-
- ◇ 재난안전상황실 초동 대처 강화 및 신속한 상황 전파, 재난정보 관리
 - ◇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재난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
-

[1]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

- (재난안전상황실 운영) 24시간 빈틈 없는 상황관리 체계 유지
 - 각종 재난정보를 실시간 수집·분석·전파,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
- (지능형 예·경보시스템 구축)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 마련
 - 재난영상감시 CCTV, 재난방송장비, 재해문자 전광판 등 주요 예·경보시설 확충
- 통제관제형 실시간 정보수집 재난안전상황관리
 - 기관별 보유자원등을 연계 활용한 재난안전통합영상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영

[2] 선제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

- (재난 상황별 대응)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별 대응계획 마련
 - 대응절차, 상황판단회의, 13개 실무반 협업계획,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
- (취약시설물 관리)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등 시기별 체계적 관리
 - 시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위험요인 제거
 - 시특법 제1·2·3종시설물, 지역축제장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설관리
- (한 발 앞선 재난대응) 이상기후 대비 계절별 사전대비체계 강화
 - 여름철(5.15~10.15), 겨울철(11.15~익년3.15) 등 사전대비기간 운영
 - 폭염, 대설, 한파 등 수시변동 기상에 한 발 빠른 대비·대응체계 구축
- (지진방재 대책)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맞춤형 ‘지진방재 연구용역’ 시행

[3]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 확대

- 자연재해 피해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한 ‘풍수해 보험’ 가입 확대
-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‘재난배상책임보험’ 가입율 제고
-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’ 시행

4.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민·관협력 확대

-
- ◇ 재난안전 종사자 및 시민 등 실전적 교육·훈련으로 현장 대응력 제고
 - ◇ 유관기관·단체 간 협업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
-

① 재난관리 역량강화 기반 조성

- (재난관리자원 체계적 관리)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 지원을 위한 비축관리
 - 자재·장비·인력 등 자원공동활용시스템 등록 및 자원이동 훈련 실시
- (재난관리 실태 평가 만전) 선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성 강화
 - 중앙 연계 평가지표에 의한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, 인센티브 제공
- (종사자 전문교육) 시·구, 공사·공단 등 재난관리 종사자 역량 제고
 - 자체 전문교육,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, 전문교육기관 위탁, 전문가 컨설팅

② 실전적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효성 확보

- (재난대응 훈련 내실화) 대응매뉴얼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
 - (안전한국훈련) 재난종합 정기훈련, 5월 중 5일간, 90여 기관·단체 참여
 - (상시훈련) 재난유형별 상시훈련실시로 훈련체계 및 실효성 제고
 - (상황전파훈련) 불시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상태 점검
- (매뉴얼 정비)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력 제고
 - 30종 매뉴얼 점검·훈련 결과 개선사항 보완,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·훈련

③ 민·관협력의 재난대응 체계 강화

- 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) 민간부문과의 인적·물적 협력체계 구축
 - 15개 민간단체가 재난관리 주체로 참여, 역할부여 및 대응 협력
- (민·관 거버넌스 확대) 유관기관·민간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업 대응
 -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예찰 및 대응·복구,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
 - 지역방송사, 군부대, 자원재활용협회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·단체 간 협업
- (재난안전의식 제고)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참여 활성화
 - 재난포스터 공모(4월중), 재난영화제 개최(9월중), 재난사진 순회전시 등

5.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

- ◇ 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 안보 강화
- ◇ 비상시 신속·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상시 민방위태세 확립

①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확립

- (통합방위역량 제고) 민·관·군·경 상호 협력체계 구축
 - 통합방위협의회(분기1회), 예비군의 날 기념식(4월),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(7월)
 - 명절·연말 군·경부대 위문, 군 주요지휘관·성우회 등 안보관련 단체 격려
 - 예비군부대 지원(79백만원), 공직자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체험 추진 등
- (비상대비태세 확립)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
 - 동원자원 및 인력조사(2월~4월),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(5월), 인력동원훈련(6월), 충무시행계획 수립·관리(25개 계획)
 - 비상 시 대비를 위한 충무시설 관리·운영 강화
- (국방안보도시 육성) 관군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
 - 관군 협의회(반기1회), 군 장병 시티투어(연2회), 국군장병 음악회(1월)

②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

- (누수없는 자원관리) 지역 안전지킴을 위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·훈련
 - 민방위대(지역대, 직장대, 기술지원대) 편성 통지 및 관리 강화
 - 지역내 재난 예방·대응·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
- (시설관리 철저) 민방위 시설·장비의 관리를 통한 유사시 효율적 활용
 - 민방위 대피시설(746개소)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
 - 비상급수시설(196개소) 수질안전성 확보 및 유사시 안정적 급수공급

③ 비상시 대비 신속한 경보발령 전달태세 구축

- (경보통제상황실 운영)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
 -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체계 유지 / 2명 3개조 3교대
- (경보시설 확충) 시설 확충과 기능보강 등 경보시설 안정적 운영
 - 노후 경보단말기(사이렌) 교체(8개소) 및 신설(3개소), 위성수신기 교체(4개소)
 - 방송국 연결장비 보강(신설1: 대전TJB / 교체3: 대전KBS, MBC, TBN)
- (경보대응체계 확보) 경보시설(56개소) 정기점검(매월), 구·동 경보업무담당자 현장교육

6. 시민생활건강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

-
- ◇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 주변 식품, 환경 등 민생침해 사범 적극 단속
 - ◇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방범활동 지원 및 치안협력체계 구축
-

① 민생 유해 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강력 수사

- (수사분야) 시민건강과 먹거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
 - 식품, 공중위생, 의약품, 환경, 원산지표시, 축산, 청소년보호
- (수사방법) 분야별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·공조수사
 - (기획수사) 시기·계절별 기획수사 및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기획수사
 - * 관광지 주변 음식점 · 다중이용시설, 계절적 환경오염 사업장 기획 수사 등
 - (공조수사) 단속기관 및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·공조수사 효율성 도모
 - * 검찰청, 식약처,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수사계획·수사결과 공유

②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

- (수사역량 강화) 유관기관과 협업 및 전문성 확보로 민원 최소화
 - 유관기관·관련부서와 협력 : 단속 및 유형별 발생 현황 공유, 협업 등
 - 전문성 제고 : 기본 및 심화교육 실시, 지명분야 전문직위 전문관 확대
 - * 전문교육기관 (법무연수원, 식약처, 관세청 등), 수사(환경, 식품) 전문 직위지정
- (수사자료 공표) 수사성과 홍보로 시민제보 및 법질서 이행분위기 조성
 -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로 유해업소 등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
 - * 단속계획 홈페이지 공개(연2회), 수사결과 언론 · SNS공개 및 관련기관 제공(수시)

③ 민 · 관 · 경 협업 범죄예방 기반조성

- (치안협의회 운영) 법질서 확립과 지역 치안환경 개선
 - 치안주요사업 협의 및 안건 논의(정기회 및 임시회), 실무협의(수시)
- (자율방범대 활동지원) 안정적인 방범활동 지원과 모범대원 사기진작
 - 자율방범대 현황조사 및 초소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
 -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시책 추진(모범 자율방범대 표창 등)

